독자 수필 '쟁기'가 될 녹슨 총 한자루

나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또 열심히 배웠다는 것, 비록 그것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가산점이나 경력으로 더해지진 않아도 물수제비뜨듯 잔잔하게 퍼지는 감동으로 기억될 몇가지가 나의 대학교육에선 있었다는 것이다.

11월.

교정을 돌아다니는 바람에 청신한보다는 스산함을 먼저 느끼는 것은 내가 4학년, 가을없이 겨울을 맞게된다는 졸업반이어서일 것이다. 굳이 찾기지 신종무기가 번쩍이는 전쟁터에 녹슨 총 한나들고 선 총알받이랄까? 그래도 한가지 확변으로 덧붙일는 건 이 4학년, 1년의 휴학기간까지 합한 다른 남보다 더 길게 5년을 거쳐 대학에서 나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또 열심히 배웠다는 것. 비록 그것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가산점이나 경력으로 더해지진 않아도 물수제비뜨듯 잔잔하게 퍼지는 감동으로 기억될 몇가지가 나의 대학교육에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분은 철학과기위해 태어난 분같다고 우린 그랬다. '철학'이란 전공에 대해 우리가 품었던 막연한 기대를 철학화시킨 듯한 교수님은 모름지기 철학자란 생활의 자질구레한 일에 유능하지 못해야된다고 믿으셨다. '철학의 제문제'란 그 가을의 강의에서 그 분은 자유, 신, 철학 세가지 주제를 한 학기 내내 다루셨는데 그러한 제자들은 그 분이 피우시는 담배에서 언제 재가 떨어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강의하셨다. 우리가 중요하냐는 것을 적을라치면 그 분의 얼굴색을 바꾸셨다. "받아보는 걸로 철학이 되나, 자네들, 이 강의는 말야 사유를 하면서 들으라고." 시험때면 그 분은 우리에게 강의내용이 적힌 유인물을 주셨고 우린 그것을 요약해서 자유롭 신원 철학을 논했다. 자유인춘의 자유인인 한 남자가 이 자유에 치이 죽었다는, 그는 실업자였고 그래서 시간의 속박은 없었지만 삶 자유가 없었다는…. 그 분의 강의는 지금 나의 삶에 스며들어 있다. 물론 나는 혜전의 변증법을 신봉하고 구조적, 사회·경제적이란 말을 즐겨쓰는 그 분의 보시기엔 유학도 라기보다 교회도 같은 존재지만.

부푼꿈으로 처음 들은 수업은 화멘이었다. '수업고 내고 말하는 법을 배운단 말이, 별 쫏기는 속으로 불붙였지만 '열심히 하겠읍니다. 좋은 성적 바라진 않아요.' 그 과목은 1학점이지만 배정된 시간은 주당 2시간이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보내야 했던 시간은 그 몇 배. 나는 그 과목의 유일한 타과 수강생이었고 미술교육과 학생들은 부록이나 친절했다. 난 빈시간이 생기면 포르 사래로 달려갔고 석양화실기실 한 구석에서 내 도구를 꺼내 들었다. '이건 어떻게 하는거야?', '이렇게 하면 안돼?' 다섯 살 아이가 궁금하기 너무나 많듯 나는 열살 위쯤 되는 사람들을 괴롭혔다. 재료비 만원 달란 소릴 내게 못해 쭈뼛대던 과대표 아저씨, 동관화를 무식시키면서 나쁜 약 쓴맛에는 내가 밑을테니 너흰 얼굴 물러라던 그 강사님, 수업하다 나와 무거운 판화기를 들려주던 남학생들, 가끔은 나를 둘러싼 잡음꽃을 바라던 여학생들… 예쁘진 않았지만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보다는 질문과 토론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서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교수가 학생에게 특히 질문을 할 때에는 가능한한 학생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어느정도 주고 난 다음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다하여 그를 비하하는 경솔하시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을 할 경우에는 강의도중 불쑥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먼저 손을 들고 질문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기본 에티켓이라 할 수 있으며 가능한한 강의주제 및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질문은 확문적이고 논리정이어야한한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강의가 종료된 후 교수가 강의실을 나가기 전 만저 학생들이 급히 강의실을 나가는 것은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다. 교수가 먼저 나가기 전까지는 자리에 어느정도 머무는 것이 예의라 할 수 있다.

〈수원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

대학생활과 강의실 문화

⊙ 대학인과 예절(4)

강의시간 철저히 엄수돼야 문답식의 강의가 우선

대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뭐니뭐니해도 강의시간이라 할 수 있다.

대학생활은 써클생활을 통해 자기발전을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친구 및 선후배와 어울림으로써 넓은 대인관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지만 강의시간과 결코 비교되어질 수는 없다.

옛날부터 "아는 것(지식)이 힘이다"라는 말은 늘 있어왔지만 앞으로의 정보사회에서는 지식의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질 전망이기에 대학에서 강의의 비중 또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어쨌든 대학에서 강의 시간이 아랄로 그 어느 다른 행사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인식하게 지켜져야 됨은 불문이려니와 그 어느 다른 목적이나 명분으로 강의시간이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학생들은 물론 교수나 강사 또한 분명히 잘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학의 현실이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우리대학인! 모두는 강의시간의 철저 불침해성과 신성하에 대하여 다시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와 같은 신성한 강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적어도 강의실에서 지켜져야 될 에티켓이라 생각된다.

첫째, 강의시간은 철저히 엄수돼야 한다. 학생들은 늦어도 세째줄 강의는 일반적으로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보다는 질문과 토론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서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교수가 학생에게 특히 질문을 할 때에는 가능한한 학생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어느정도 주고 난 다음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다하여 그를 비하하는 경솔하시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을 할 경우에는 강의도중 불쑥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먼저 손을 들고 질문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기본 에티켓이라 할 수 있으며 가능한한 강의주제 및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질문은 확문적이고 논리정이어야한한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강의가 종료된 후 교수가 강의실을 나가기 전 만저 학생들이 급히 강의실을 나가는 것은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다. 교수가 먼저 나가기 전까지는 자리에 어느정도 머무는 것이 예의라 할 수 있다.

〈수원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

교수동정

김낙인교수 미국방문

【수원캠퍼스】▲김낙인(외대·외국어·교수·내탕) 1일부터 12월까지 학술참석차 미국방문 ▲박한국 한의대·한의학 교수·내탕 6일부터 19일까지 인도와 전통의학 시찰 및 연구차 인도방문 ▲김광호(한의대·한의학 교수·내탕 7일부터 19일까지 동양의학대사전 자료수집차 인도행.

습 득

분실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 ▲박성근(생물·89) ▲김광수(지리·89) ▲은윤식(경지·89) ▲김종덕(한의예·91) ▲정민교(치의본·89) ▲정학재(체육·91) ◆지갑 ▲김광록(국문·89) ▲김현정(수학·90) ▲선혜영(미교·90) ▲손영재(체육·86)

【수원캠퍼스】◆학생증 ▲임경식(영문·91) ▲이용길(영정·91) ▲박열(영정·90) ▲박세빛(조경·92) ▲신성환(체육·92)

등 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전미형(국문·1) ▲조은은(영문·2) ▲김혜연(영문·2) ▲김선호(생물·3) ▲정봉수(생물·1) ▲권기현(법·1) ▲김정호(법·1) ▲김효식(중외·4) ▲고경민(중외·1) ▲김종민(중외·1) ▲배희정(경제·2) ▲박현섭(경제·3) ▲신진욱(경제·3) ▲심재윤(경영·2) ▲김계수(경영·4) ▲지윤진(경영·2) ▲신진형(경영·3) ▲조욱제(무역·3) ▲조훈구(무역·4) ▲의대 학생회 ▲김기연(간호·4) ▲유수현(간호·3) ▲한의대 학생회 ▲박계수(한의예·2) ▲임지현(한의예·2) ▲양득연(약·1) ▲윤식재(약·1) ▲소상록(정약·3) ▲노은희(정약·1) ▲이정희(정약·1) ▲정희영(정약·1) ▲이정서(기전·1) ▲소승태(체육) ▲김효섭(체육) ▲박중현(체육) ▲김재호(축구부) ▲이선 산의원(219) ▲박영범(산의원 219)

【수원캠퍼스】▲김상룡(영문·3) ▲소은정(서반어어·2) ▲이지영(회계·1) ▲김상희(사회·1) ▲김성일(우주·1) ▲김태욱(토목·4) ▲권병수(전자·4) ▲김용효(기계·1) ▲허재영(전산·3) ▲최원(체육·1)

알림터

동문모임

충남고 동문회

【서울캠퍼스】◆동문회 ▲용문고·성신여고·오는 17일 오후5시, 제대앞 뷔페 ▲공주사대부고·오는 21일 오후6시, 우림회관 ▲마산 중앙고·제일여고·오는 20일 오후6시, 국전 ▲동경·건축·오는 20일 오후6시30분, 'with us' ▲전남고·오는 19일 오후6시, 우림회관 ▲전남고·오는 19일 오후5시, 뷰재라빈 ▲전북·정의·오는 20일 오후5시30분, 헤퍼스 ▲대아고·오는 21일 오후6시, 존조바니 ▲브톤고·오는 19일 오후6시, 교시탑 ▲수원고·오는 18일 오후5시, 모스크바 ◆향우회 ▲마산·오는 18일 오후6시, 'with us' ▲보성·오는 21일 오후5시, 우림회관

【수원캠퍼스】▲대신고·배화고·오는 17일, 오후5시30분, 광덕 휴게실 ▲진주·명신고·오는 18일 오후 6시, 공대휴게실

분 실

습득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지갑=김진범(의본·4) ▲김순옥(약학·91)·봉은샤 7장(통장·돈) ▲박종현(체육·3)·탁하지갑(학생증, 신수증 등) 국선관 전화박스에서 분실 ▲임지연(의상·1)=학생증

경영학과 학술제 개최

경영학과 학생회는 오는 18일 오후3시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선물거래의 이해'라는 주제로 학술제를 연다.

사학과 탁본전 열려

사학과 학생회는 지난 12일부터 3일간 중앙도서관에서 학술제 일환으로 탁본전을 열었다.

이번 탁본전에서는 하계탁본 답사에서 만든 탁본 25점과 졸업성 작품 2점이 전시되었다.

영문학과 학·예술제 개최

영문학과 학생회는 오는 19일 시청각실 교육원에서 학·예술제 겸 졸업생환송회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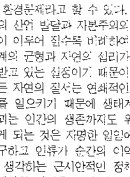
KUSA '92 창립제

서울캠퍼스 동아리 KUSA(Korea Unesco Student Association)는 오는 21일 오후3시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92 창립제를 개최한다.

졸업생과 재학생회원들간의 우애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번 창립제에서는 올해 사업평가를 비롯하여 올바른 대학문화 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제 등이 있을 예정이다.

내가하는 공부

생태계의 균형과 자연의 섭리



원 병 오
(문리대 교수·생물학)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관리 모색
관계기관의 합리적 국토관리 필요

현대 한국사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근자에 이르러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환경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고도의 산업 발달과 자본주의의 발달이 이루어 왔수록 비례하여 생태계의 균형과 자연의 심리가 위협받고 있는 심중이기 때문이다. 모든 자연의 질서는 연쇄적인 결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생태계의 파괴는 인간의 생존까지도 위협하게 되는 것은 지명한 일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순간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정책과 무책임한 방관을 저지르는 우를 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러분 그런 국가적이고 전인적인 차원에서의 연구가 절실한 바 본교 조류연구소와 한국생태계연구소에서는 무준히 이 분야의 연구를 지원중이며 7년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생태학적 연구를 지원중이다. 이 연구는 1992년 5월1일부터 1993년 4월30일까지 일년에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며 부산시청지원의 프로젝트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수조류의 도래 동태에 관한 자료의 비교 연구, 둘째 중·장기적인 보호관리에 관한 방안, 셋째 보호관리에 대한 장애요인과 대책 등의 종합적 연구이다.

아울러 내년 1993년 3월에 착수할 예정인 연구 계획은 영종도 국제공항 건설이 철새에 미치는 영향과 차선책 연구이다. 최근 발표된 영종도 공항 건설계획은 심각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으므로 그로 따른 더욱 더 중요한 차선책 마련에 모심하여야 할 것이다" 라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수조류의 도래 동태에 관한 자료의 비교 연구, 둘째 예상 소음권을 벗어난 강화도 남만지역의 새로운 도래지(생태계) 조성 계획이다. 새로운 도래지 조성계획의 세부계획은 우선 해안 내 인공연못을 조성하고 그 속에 인공섬, 인공 새둥지받침대(벳목), 분관보호(접근로), 위조된 둥지소, 관측소(조류탑)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이상 수초군락지역을 인공섬과 인공 연못 내에 조성하여 수초사와 오아시스(먹시, 휘식, 잠자리), 물시 등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차선책으로서의 대책 마련이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생태계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이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구체적인 노력들은 취미나 의욕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탄탄한 기초개념을 갖추어야 조류학이나 생태계 보호관리를 위한 농어촌의 폐쇄하고 중요로운 환경을 위해서 국토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0
1년후면 크라운이 60년이 됩니다.

우리 기쁜 젊은날을 위하여——
헬로우 해가, 헬로우 크라운맥주!

이제 세계적인 맥주왕 '해가'가
젊은날의 기쁨과 함께합니다.

앞으로 1년 후, 1993년 ——
마침내 크라운이 60년이 됩니다.
크라운맥주는 60년을 1년 앞둔 지금,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생활속에 함께하기 위해 세계적인 맥주왕 '해가'를 캐릭터로 성행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젊은날의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할 크라운맥주의 앞날을 눈여겨 보아 주십시오.

크라운의 새로운 캐릭터, '해가'
원작에 1,600여개의 수만에 인기리에 판매된 Dick Brown의 만화 'Hagar The Horrible'의 주인공 ——
맥주를 좋아하는 호방한 성격의 바이킹입니다. 카운트로는 아주 행복, 기쁨, 분기, 힘 중시해 하고기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즐거움
크라운맥주